



제 4 회 아시아 건축사대회 및 제11차 ACAE이사회 참가기

DELHI				AGRA		
ARRIVALS		CONFERENCE		TOUR	COUNCIL MEETINGS	
DAY 0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DAY 6
26.9.90	27.9.90	28.9.90	29.9.90	30.9.90	1.10.90	2.10.90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STUDENTS ARRIVE	DELEGATES ARRIVE	ACA 4 SESSION I RURAL CONTEXT	ACA 4 SESSION III REGIONAL CONTEXT	LOCAL SIGHT SEEING AGRA	ARCASIA COUNCIL SESSION 1 ACAE MEETING SESSION 1	ARCASIA COUNCIL SESSION 3
		LUNCH	LUNCH	LUNCH	LUNCH	LUNCH
OPENING OF EXHIBITION AND STUDENT JAMBOREE		ACA 4 SESSION II URBAN CONTEXT	ACA 4 CONCLUDING SESSION	ARCASIA WORK SHOPS	ARCASIA COUNCIL SESSION 2 ACAE MEETING SESSION 2	ARCASIA COUNCIL SESSION 4
	INAUGURAL CEREMONY KEY NOTE ADDRESS & DINNER	FRIENDSHIP NIGHT AT SURAJKUND			LEAVE FOR AGRA	CLOSING CEREMONY AND DINNER

[표-1] 제 4 회 아시아 건축사대회 일정표

3. 제11차 이사회의

29일 점심시간 후에 마지막 회기를 짚막하게 끝내고 참석하는 대표단은 3대의 버스에 분승하였다. 서너시간 걸려 아그라에 도착하리라 예상했는데 데모와 폭동으로 인해 여러 지방도로들이 교통이 차단되어 돌고 돌아서 8시간 이상 걸려 자정이 넘어 아그라의 호텔에 도착하니 모두들 지쳐버렸다. 우선 30일은 단체여행 일정이 잡혀 있고 10월 1~2일 이틀에 걸쳐 이사회의를 하게 되어 있으니 다행이었다. 30일 점심후에 Agra Fort 와 Taj Mahal 을 관광하였다. 오래 찬찬히 보고 싶

李廷根

건축사사무소 우리계획,
本 協 會 國 際 會 議 會 員
by Lee, Jeong-Keun

었지만 대충돌아볼 시간밖에 없었다. 만찬이 있기전 저녁에 Ar.P.L.Sharma 기념 강연회가 있었다. P.L.Sharma 는 Agra 지방 태생으로 일찌기 건축의 선진교육을 받고 이 지방의 건축 문화와 건축교육에 많은 공헌을 한 분이라 한다. 이미 타계했지만 이 지방 건축인들이 흠모하는 건축인인 것 같다. Agra 시의 건축인들과 유지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연사는 이번 ACA -4중 첫 회기의 좌장을 맡은 바 있는 그리스의 Psomopoulos 씨였다. 그는 아테네의 Doxiadis Associates 의 부소장이며 Ekistics 이론의 추종자인 듯하다.

Broken English 웅변대회에 나가면 3연패는 무난할 것 같다. 강연 내용보다는 웅변적인 그의 설득이 장내를 압도한다. 강연 요지는 건축은 삶의 총체적 체계라는 것이고 개발에 의한 성장은 사람들의 선택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무방한 것이며 환경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정치가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 교육은 중요한 것인데 이는 기술이나 예술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문제(Humanity)의 가장 근본적인 것에 닿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1일 아침 이사회의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후로 연기하고 오전에는 관광을 가기로 했다는 전갈이 왔다. 맥이 풀렸다. 끝낼것 끝내고 관광을 해야지 시작과 끝이 흐린 것이 인도식인지 아니면 이번 대회조직위원회만의 케이스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처음부터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되었다. Fatehpur Sikri 란 유적인데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1일 오후에 제11차 이사회의가 시작되어 2일 오후까지 계속되었고 회의끝에 마감파티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인도의 정치상황이 어두워 교통편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관계로 모두들 일찍 떠나게 되어 유야무야되고 우리 한국대표단도 예정을 바꾸어 일찍 떠나기로 했다. 아그라에서 상봉하기로 된 우리 학생 대표들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모두들 불안한 마음으로 델리로 향발하였다. 다음은 이사회의 토의사항 요점을 요약한 것이다.

1. 의제번호 1.0.~4.0.

이번 이사회의에는 회원 12개국중 스리랑카가 빠져서 11개국이 참가하였고 읍저버로 호주, 마카오, 일본 건축사협회와 코먼웰스 건축사협회 회장 및 세계건축가협회(UIA) 회장이 참석하였다. ACA -4의장인 인도건

축사협회장 Deobhakta 와 현 아시아 건축사협의 회장 Khambatta 및 읍저머로 참가한 나라의 대표들 순으로 인사가 있는 후에 작년 방콕에서 있었던 제10차 이사회의 회의록의 검토 및 정정이 있었고 이어 인준되었다.

세계 건축가협회(UIA) 회장 Rod Hackney 씨는 UIA 에 소속된 아시아 회원국이 18나라이고 UIA 제4지역에 속한 아시아 각국의 활동이 아시아 건축사협회와 중첩되므로 UIA 의 지역활동 활성화를 위해 UIA 제4지역 기구와 ARCASIA (아시아 건축사협의회)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협의와 사무절차가 진행중이라는 보고였다. 그리고 마닐라의 ACA -1에서 채택된 건축실무 국제윤리강령이 UIA 에서 인준된 내용의 유인물이 각 협회에 전달되었다.

현 Common Wealth 건축사협의회(CAA) 회장은 나이지리아 사람인데 그는 근래 35개 회원국에서 중점적으로 해운 사업은 학교 건축을 개선하는 일이었으며 건축가들이 자력갱생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 마카오 건축사협의 회장은 마카오도 홍콩에 이어 1990년에는 중국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지만 아시아 건축사협의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신일본 건축가협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고이찌씨는 일본도 아시아 건축사협의회에 합류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양건축계와 교류가 빈번한 자국의 건축수준에 자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일본이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의 강국들이 적극 참여하여 아시아 건축계의 교류가 활발해 지는 것을 느끼고 늦기전에 가입되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

Meera Deobhakta 의 재무보고가 있었는데 필리핀과 스리랑카가 회비미납 상태이고 전임 회장단으로부터 전회기 동안의 협의회 재정 잔금처리 인수인계가 확실치 않았다. 회원국들은 전, 후임 집행부간에 재무인계인수를 분명히 하도록 촉구하였다.

2. 의제번호 5.0.

각국 협회가 작년 이사회이후 일년동안 시행한 주요 사업 내용과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대한 건축사협회에서는 이번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두 번째를 맞이했던 전국 건축가대회의 경과와 전망, 건축법령연구소의 설치와 활동, 건축법령 개정을 위한 토론회와 법령

	Presentation / Action
1.0 Introdection	
1.1 Welcome Speech by Host-Chairman ACA 4	Mr. Madhav Deobhakta
1.2 Chairman's Opening remarks	Mr. Russl Khambatta
1.3 Greeting from invertees	
2.0 Agenda	
2.1 Addition / Alteration to Agenda	Mr. N. Badheka
3.0 Minutes of 10th Council Meeting in Bangkok 1989	
3.1 Review and Corrections	Delegates
3.2 Adoption of Minutes	
3.3 Matters Arising	
4.0 Hon. Treasurer's Report	Mr. Meera Deobhakta
5.0 National Reports	Delegates
6.0 Report of Practice Working Group	Mr. Kington Loo
7.0 Report of Outreach Programme Group	Mr. Akhtar Chauhan
8.0 Report of Architect Selection Working Group	Mr. Sangkoon Atthakor
9.0 Arcasia Think Tank	Mr. Zaigham Jaffery
10.0 Arcasia City followup	Mr. Husseln hamzah
11.0 Arcasia Information Centre	SLIA
12.0 Arcasia Awards	Mr. S.A. Bilgrami
13.0 Arcasia Bye-Laws	Mr. Russl Khambatta
14.0 Arcasia Proposal for compilation of Statues	Mr. Russl Khambatta
15.0 Forum-Venue	Delegates
16.0 Miscellaneous	Delegates
17.0 A.C.A.E. Report	Mr. Shrish Deshpande
18.0 Membership Extension	Mr. Madhav Deobhakta
19.0 A.C.A.5-Venue-Invitation-Theme	Delegates
20.0 Election of Office Bearers	Delegates
21.0 Venue-Date for next Council Meeting	Delegates
22.0 Any other matter with Permission of Chair	Delegates

[표-2]아시아 건축사 협의회 제11차 이사회의 의제

개정 추진을 위한 활동. 각 위원회의 활동상황과 국제 학술회의 등에 대해 보고하였다.

3. 의제번호 6.0., 7.0., 8.0., 10.0., 11.0., 14.0.

제9차 서을 이사회때에 Practice Work, Outreach Programme, Architect Selection 등 3개의 활동구역을 만들 것을 결정한 바 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 회의에 그 책임자들도 참석치 않아서 토의할 내용이 별로 없었다. 제8차 이사회에서 설치한 바 있는 Think Tank 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사업

계획이 불확실하고 실현성이 없는 것은 일을 벌이지 말아야 했을 것이다. 아직은 아시아 건축사협의회의 일하는 방법이 정착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으며 시간을 두고 개선해야 할 것 같다.

활동구역을 책임자가 불참하는 경우 그가 속한 나라의 협회에서 책임지도록 하였다. 의제 11.0. Arcasia Information Center 에 대해서는 담당국인 스리랑카가 불참하여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제 10.0 Arcasia City Followup 은 말레이시아에서 담당했는데 회원국 주요도시의 건축을 책자로 꾸미는 사업으로 잘 진척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아시아 건축사협의회도 발돋움해서 제법 헛수를 거듭했으니 좀더 효율적인 운영과 각국의 회원들간에 공감대를 불러 일으키는 실질적인 사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과 제도운영의 정비가 필요한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시아 건축계가 세계 건축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대한건축사협회도 이제는 아시아 건축사협의회가 돌아가는 사정들을 어느정도 이해할 만하게 되었으니 비전을 가지고 우리나라대로의 공헌을 투여해야 할 시기에 이른 것 같다.

대한건축사협회가 말레이시아와 협력하여 주관하도록 위촉 받았다.

의제 14.0.는 인도 건축사협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각국의 건축법령을 요약하여 한데 묶어 아시아 건축법령 모음집을 만들자고 제의하였다. 각 나라마다 제도가 많이 다를 수 있고 용어와 해석의 차이등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인도 건축사협회 주관으로 추진해 보도록 결정하였다.

4. 의제번호 15.0. Forum 6- Vanue

작년 방콕의 제10차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작년에 새로 가입한 중국 건축학회가 제6회 포럼과 제13차 이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고문이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포럼을 조직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홍콩의 Ronald Poon 이 중국 건축학회를 많이 도와서 중국 건축학회에서 제6회 포럼과 제12차 이사회 의 개최계획안을 제출하였다. 이 안에 의하면 이사회회는 내년 9월 24~25양일간, 그리고 포럼은 27~28일 양일간 각각 북경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포럼의 테마는 “아시아에서의 대안 위 주거단지 계획의 새로운 방향”이다.

5. 의제번호 13.0. Arcasia Bye - Laws

ARCASIA Contitution 에 따라 더욱 자세하게 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따로 시행규칙을 만들기로 제10차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으로 파키스탄의 빌그라미씨가 초안을 준비해와서 이를 심의하였다. 각국에서 시행규칙 초안에 대한 의견을 조목조목 제시하고 토의하였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회원 가입 조항에 이사회에서 가부를 심의하기 전에 입회원서를 제출한 단체에 대한 심사조항이 아카시아 회장에 거의 일임되어 있는 사항을 지적하고 심의위원회를 두어 어떤 절차를 밟도록 해야함을 제안했다.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에서도 거의 유사한 지적을 하였다. 부회장을 3명정도 두어 지금처럼 명예직 비슷하게 두지 말고 각각 일정한 책무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과 회장단 선출시 한꺼번에 갈지 말고 부회장들의 임기를 연차적으로 한 사람씩 교체하도록 해서 협의회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포럼 조직 책임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고 1인이 2년기간의 임기를 2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CAIE (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협의회 총무간사의 직무내용도 자세히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의 토의사항들을 검토하여 Bilgrami 씨가 초안을 보완하여 각 회원국 협회에 의견을 다시 의뢰하도록 했다.

6. 의제번호 12.0. ARCASIA Award

작년에 제10차 이사회에서 결정된 바 있는 아카시아 건축상의 운영을 위한 운영규칙을 파키스탄의 Zaigham Jaffery 가 준비해 왔다. 성실하게 잘 만들어져 왔다. 세부 고칠 사항이 있으면 각국의 협회에서 더 의견을 내서 보완토록 했으며 다음 회장단에서 시행토록 하였다. 아카시아 건축상의 운영 최고 책임자는 ACA 주최국 협회장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운영위원장이 맡기로 하였다. 심사위원구성은 아카시아 회장, 건축상운영위원장, 아카시아 지역 3개구역중 ACA 구역별로 한 사람씩 탁월한 건축가 ACA 개최국의 비 건축계 인사1인, 아카시아 이외 지역에서 초청된 탁월한 건축가 1인 포함6명으로 구성된다. 아카시아의 3구역구분은 다음과 같다.

- ZONE A :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 ZONE B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 ZONE C : 중국, 홍콩, 한국, 필리핀

7. 의제 17.0. ACAIE Report

ACAIE (교육위원회) Deshpande 의장으로 부터 이사회와 병행해서 진행된 ACAIE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교육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학생잼버리의 진행에 대한 보고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우리 대표 학생들과의 모든 연락관계가 실통치 않은 것으로 보아 잼버리가 조직적으로 잘 운영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ACAIE 회의에는 전임회장이 출석하여 일이 연계가 되도록 결정하였다. 이번에 차기 ACAIE 회장으로 선출된 말레이시아의 KASI 가 학생잼버리 프로그램도 시행1년전에 이사회에 제출되어 승인받도록 제안하여 통과되었다. 이번 잼버리를 보면 필히 일찍부터 계획을 검토받았어야 했을 것이다.

8. 의제 18.0. Membership

호주, 마카오, 일본 등에서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에 가입할 의사는 회장단에 전달한 것 같은데 이사회에 하등의 검토할 만한 서류가 제출된 게 없었다. 희망국과 회장단 모두 일의 순서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 같다. 다음에 회원가입 심의위원회를 구성 정식으로 다시 절차를 밟도록 하였다.

9. 의제 20.0. 회장단 선거

파키스탄의 Syed Akeel Bilgrami 씨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부회장은 3개의 Zone 에서 각각 1명씩 뽑았는데 필리핀, 싱가포르, 방글라데시의 협회장들이 선출되었다. 지금까지 파키스탄 사람들이 일해온 몇가지를 보면 아무지게 잘 해낼 것 같다.

10. 의제 19.0. ACA-5

홍콩도 중국에 영토가 통합되기 전에 아시아 건축사대회를 개최해 보고 싶어서 ACA-5를 유치하려고 했으나 파키스탄이 준비를 많이 해왔고 그것을 그들의 활동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파키스탄의 Lahore 에서 1992년 가을에 열기로 결정되었다. 테마를 '건축의 새진로'라고 임시로 준비하였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내년의 이사회에 제출되어 다시 검토 될 것이다.

4. 소감

제4회 아시아 건축사대회와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 제11차 이사회에 참가하고 느끼는 바는 인도가 이번 대회를 치루는데 매우 힘겨웠다는 인상을 받았다. 물론 경비문제가 가장 큰 부담이었을줄 짐작된다. 더군다나 인도내부의 정치상황이 어지러워 계획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예측하기 어려웠던 요소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졌던 것이니만치 주어진 예산내에서 보다 용의주도하고 내용을 알차게 끌어갔더라면 돈 덜드러게 흠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인도 국내 회원들과의 일하는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외국 손님들을 초대할 국제회의를 아무리 수적으로 내국인의 압도적으로 많다하여도 진행방향은 국내용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마치 주최국 내국인들의 잔치에 회원국들이 참관하러온 것 같은 인상을 받게 해서 안될 것이며 아시아 건축인들의 대화야 할 것이

다.

이러한 대회에서 학술토론회의 주제의 줄거리가 일관되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의욕만 앞서서 발표는 문들을 너무 많이 뽀뽀하게 집어넣어 양으로 빈틈을 메꾸려 하면 주제는 잡탕이 되어 버린다. 몇몇의 인도인 발표자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발표내용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인데 그들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청중 및 토론자간에 더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였다면 훨씬 낫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토론자 및 좌장이 대회 훨씬전에 정해지고 발표내용이 전해져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발표자들이 수시로 바뀌고 발표내용이나 제목도 당일해야 알게되고 하는 상황에서는 깊이 있고 뜻있는 의견교환이 어렵다. 재치와 임기응변이 현장을 지배하게 마련이다.

자연히 서울에서 1988년에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했던 제3회 대회와 견주게 된다. 부드러운 것은 일반회원들의 학술토론회의에의 참여도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아마도 영어를 공식 공용어로 해서 그들에게는 소통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우리와는 사정이 다를 수도 있겠다. 동시 통역이 되는 상황에서는 참여의식만 있다면 언어의 벽이 많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전봉수위원과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협회 회원들이 학술토론회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언어의 장벽도 있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아직 Conference 문화가 익숙치 않다는 것이다. 질문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 주제넘게 크게 떠들어 대야 하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적극적인 사람에게는 무얼 그렇게 나서느냐 하는 식으로 대하는 수도 있다. 어릴적부터 어른들 앞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도 참고 말대꾸하지 말라고 교육 받고 자라온 습성이 남아있인지도 모르겠다. 언어를 통해서 사리를 따지며 주고 받은 생활방식이 우리의 문화에는 아직 어색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여러 나라간에 이러한 형식이 대화 채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추세이니만치 우리 회원들도 체질에 잘 안 맞더라도 적용하는 노력은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두 사람 또는 두 나라 사이만의 관계라면 서로 상대방의 방식을 수용하면서 대화의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다른 관점이 얽히는 국제사회에서 다자간의 관계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그 형식에 맞추어 서로 소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에 중국에서는 무려 4명의 발표자가 있었다. 아시아 건축사협의회에 가입한 지 얼마 안되고 내년에는 포름과 이사회의 개최를 유치했기 때문에 홍보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선것 같은 인상이다. 그들이 우리보다 언어구사력이 결코 앞서는 것도 아니고 발표 소재를 우리도 얼마든지 주제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면으로의 의식적인 노력이 부족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는 우리도 대회마다 발표자와 좌장등의 역할을 맡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화하는 자세로서 주고 받으며 홍보도 해야 할 것 같다.

회원중 몇몇이만 잠깐 관계하고 마는 그러한 국제관계나 행사이어서는 안되겠다. 가능한 회원들의 관심사와 국내차원의 이슈들과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매개체가 되어야 하겠다.

적극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기여를 하고 배울 점을 빼놓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대한 상호영향권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아시아 건축문화권 및 아시아 동료 건축사들의 체온이 우리 회원들에게 전달되고 우리 회원들의 입김이 그들에게 가당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모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머리를 짜내야 할 것 같다. 각국 기구들만의 공식적 접촉에서 끝나고 무수한 아시아의 회원들간의 서로 감에 와닿지 않으면 진정한 교류하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아시아 건축사협의회도 발돋움해서 제법 했수를 거듭했으니 좀더 효율적인 운영과 각국의 회원들간에 공감대를 불러 일으키는 실질적인 사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과 제도운영의 정비가 필요한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시아 건축계가 세계 건축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대한건축사협의회도 이제는 아시아 건축사협의회가 돌아가는 사정들을 어느정도 이해할 만하게 되었으니 비전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로의 공헌을 투여해야 할 시기에 이른것 같다. 협의회 운영회 개선과 실질적 공동사업 및 회원들간의 교류증진등을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한다.